

“소통·협업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하겠다”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취임

유역공동체 중심 수질개선 및 개발·보전 조화 강조
미세먼지 문제·화학사고 등 주도적 대처 위해 최선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화학 사고 등으로부터 지역민의 보다 나은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삶 조성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29대 김상훈 청장이 최근 취임,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청장은 지구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잇따르는 화학사고 또한 사전 예방 및 피해 최소화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

침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유역공동체 중심의 물환경 관리기반 조성 및 수질개선, 지역 내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직원들에게는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서로 노력하고 배려할 것을 당부하면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일 잘하는 최고의 영산강청을 만들어 가자”



고 역설했다.
김 청장은 “지역의 환경보전과 환경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연세대학교(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영국 Warwick 대학원을 졸업했고, 연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정평나 있다.
그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환경관리국장, 주유류연합대사관 참사관, 국무총리실 환경정책과장을 거쳤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장(고위공무원), 국립환경

인력개발원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각 기관의 폭넓은 근무 경험을 통해 인정받은 행정가이기도 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 전남, 제주, 경남 남해·하동 지역의 환경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유역 관리 및 주암호와 동북담 등 지역의 상수원 보호 활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 하천, 도서의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폐기물·화학물질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 또한 철저히 하고 있다.

김 청장은 “모든 직원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환경문제는 정부와 관련기관의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함께해야 공동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철현기자

윤풍식·안해옥·정선희씨 ‘광주 서구민상’

광주 서구가 구정발전에 기여한 서구민상 수상자로 ▲사회·봉사부문 안해옥(52·여)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부문 정선희(47·여) ▲교육·문화·체육부문 윤풍식(63·남) 씨 등 3명을 선정했다.

윤씨는 ㈜국민통신 대표이사로서 2015년부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서구장학재단과 월광학원 장학재단 등에 2억2천여만원을 기탁하는 등 평소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고 지역발전에 공헌해왔다.

특히 2014년부터 김대중평화센터에 민주와 평화를 위해 5천만원을 후원했으며, 조선이공대 등 지역대학과 MOU 협약체결을 통해 청년들에게 현장실습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용창출에도 앞장섰다.

안씨는 보육전문가로 사회적약자 계층과 함께 하는 나눔활동 및 높은 수준의 차별화된 보육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훌륭한 인재육성에 기여했다.

또 화정4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여러 자생



윤풍식



안해옥



정선희

단체들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봉사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씨는 농성1동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郷심을 가지고 광주형 도시정원 조성사업, 골목길 벽화그리기, 마을텃밭 가꾸기, UN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낙후된 농성1동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노력해온 공로가 인정됐다.

서구민상은 서구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최환준기자



광주대, 개교 39주년 기념 장기 근속 교직원 공로패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지난 8일 행정관 회의실에서 ‘호심학원 창설 49주년, 광주대 개교 39주년 기념’ 장기 근속자 공로패 수여식을 가졌다.

김 총장은 이날 윤정기 교수와 설혜수 총무처장 등 30년 근속 교직원 13명, 김철민 교수 등 20년 근속 교직원 3명에게 장기근속 공로패를 전달

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김 총장은 “우리대학은 장기 근속자 교직원분들이 앞장서, 가족같이 하나로 뭉쳐왔다”며 “전 교직원들을 대표해 경의와 감사를 보내며 항상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주고 후배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광주도시공사, 어버이날 장수사진 전달 행사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광산구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50세대를 대상으로 웨딩, 가족, 장수사진 전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초부터 도시공사와 송광

종합사회복지관, 광주인스튜디오(재능기부)가 협업해 준비했다. 도시공사의 장수사진 전달은 2016년부터 4년째로 올해까지 299세대에 장수사진 및 가족사진 등을 전달, 어르신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최권범기자

공군 1전투비행단, 아시아나항공서 감사패 받아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지난달 광주공항 활주로 착륙 도중 앞바퀴 파손 사고가 난 여객기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준 공로로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한주 1전비 단장(준장)은 지난 6일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상무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1전비는 지난달 9일 사고 당시 부대 버스 5대를 지원해 활주로에 내린 승객들을 공항청사까지 운송했다. /오승지기자



담양교육지원청, 어버이날 어르신 위문 활동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담양읍 예수마음의 집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렸다.

예수마음의 집은 2001년 6월 설립된 노인복지시설로서 의지할 곳 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무료 양로원이다. 정부 기관의 후원 없이 수녀님들이 직접 상가나 식당, 사무실 등 발품을 팔아 찾아가서 모금을 통해 운영하는 생활시설이다.

담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과 7일 이틀간 전

직원이 어르신들에게 드릴 쿠키를 손수 만들며 5월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겼고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는 기회를 가졌다.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며 1일 자녀 역할을 했다.

이 교육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우리 주위에 소외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작은 마음이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었다”며 “‘명품 담양교육’을 통해 어르신들께 ‘효’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인성 교육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동강대 ‘Pick-Me-Up 취업 아카데미’ 개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취업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동강대 산학협력력 취업팀은 최근 전북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Pick-Me-Up 취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동강대는 취업 질 향상을 위해 21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를 초청해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

해 시간 관리나 조직생활에 필요한 팀워크, 취업 활동 등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업 동기부여 캠프’를 진행했다.

노은경 취업부처장은 “동강대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등을 위해 사회진출 동기부여 캠프, Pick-Me-Up 아카데미, 꿈의 기업 투어 경진대회 등 차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한문 서예가 김영혜씨 ‘신사임당상’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김천주, 김상기)은 2019년 ‘제51대 신사임당상’으로 한문 서예가 김영혜씨를 선정했다. 여성소비자연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신사임당의 날 행사에 맞춰 신사임당상을 선정했다. 가정에서는 어진 어머니이자 교육자이며 자신의 예술 활동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긴 신사임당의 뜻을 기리고, 여성 예술가 발굴에 힘쓰고자 하기 위함이다.

여성소비자연합은 선정자의 예술적 업적, 사회적 봉사 실천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김영혜 서예가는 평생, 자신의 예술적 자질을 개발하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왔다는 평을 받았다.

27세에 자수를 시작해 송학 병풍, 사군자 등의 6폭, 8폭 병풍을 수놓아 전시하고, 42세부터 분재를 시작해 100여개의 분재를 관리했다. 50세에는 서예를 시작해 서예대전 초대작가가 돼 객관적으로 서예 실력이 인정됐다.

신사임당상 선정 기념행사는 오는 14일 서울 충무로에 소재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오승지기자



K-water 여수권지사 어버이날 사랑나눔

K-water 여수권지사(지사장 김영우)는 지난 8일 ‘5월 가정의달’ 맞이 여수 노인복지관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효도급식을 제공했다.

김진우 여수 노인복지관장은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실시하는 나눔 행사로 사랑을 전달해주는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일부 어르신들과 조금이나마 함께 하기 위해 행사를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K-water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백운지구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광주 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대장 고민주)는 최근 탄력순찰 중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갑자기 현금을 찾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불안해하는 고객이었다면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철현기자

결혼

●이기흥·최계숙씨 장남 효경군, 김중태(광주어린이교통공원소장·전 전남일보 국장)·백귀덕(전 남도교육청 장학사)씨 장녀 민지영 결혼피로연=11일(토) 오후 5시 The-k웨딩홀 2층(062-352-1331)
●김정오(한국자유총연맹 담양군 지회장)·조광숙씨 장남 용한군, 오성은·최영미씨 차녀 유니양=18일(토) 오후 2시30분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Hotel ICC 1층 크리스탈볼룸

동문·동창회

●제13회 문성고한마음체육대회=11일(토) 오전 9시 문성고 운동장, 문의 문성고총동문회 제7회 동문회창 이동일(010-9884-7828)

등산

●광주 참조은산악회, 완주 대둔산=11일(토) 오전 7시 광주월덕캠프경기장 롯데아울렛 7주차장, 문의 회장 010-6233-7237, 산행이사 010-3631-5931